

# 장애물 헐기

모두가 속했습니다 • 모두가 봉사합니다

2015 여름 (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대학생들 )

섬기는가, 혹 섬김을 받는가

by 찬탈 후인잉크

워터루 캠퍼스 사역, 워터루 온타리오

난 한 기독교인이며, 여성이며, 딸이며, 조카며  
친척이며, 친구입니다. 난 사회 정의가며, 연설이  
가능한 옹호자며, 작가입니다. 난 수영선수로 운동을  
좋아하며 음악도 사랑합니다. 난 심리학 졸업생으로  
신학과 사회 사업도 공부했습니다. 난 곧 원목 사역과  
사회 사업가로 일할것입니다. 난 또한 뇌성 마비로  
알려진 신체 장애도 있습니다.

학원 사역을 돕는 것은 내게 우정과, 안전과, 시간과,  
내 인간 정체성의 다양성을 배치하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고 그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가장 잘  
함께할 것인가를 씨름하게 합니다. 난 대학과 대학원  
시절에 온타리오 쿨프와 워터루의 학원 사역

공동체서 한 주요 일원의 특권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학원 사역의 경험은 학문적 배움과 함께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고 또한 대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학원 사역의 주요 일원은 단지 예배, 성경공부, 식사, 그룹 토의만 하는게 아니라 내 전동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접근 장소들에다 다른 사회 일들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가 정 반대입니다. 학원 사역과 사람들은 내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하곤 합니다.

사역자들과 학생들은 내의자를 들어서 갈수없는 집이나 차에 가도록 속히 배워, 내가 그들이 있는곳이나 가는곳에 있도록 합니다. 터보건을 통해 겨울 별장을 간적도 있는데, 왜냐면 내 전동 휠체어를 눈덮인 나무들을 통해 갈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갈 수 없는곳에 가게하는 노력들은 내겐 자유롭게 갈 수 있는곳들보다 삶의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날때부터 가진 뇌성 마비는, 내가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하였지만, 그러나 난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학원 사역 공동체의 주요 일원이 되면서 내자신의 장애이상 보게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은사와 능력들은 환대, 가르침과 리더쉽 분야들에 있음을 알게되어 자라게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로 나는 공동체를 섬기는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과 능력들을 발전해 사용함으로 공동체에 속함을 갖게함과 하나님과 다른이들에게 나의 가치의 인식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것들에서 하나님을 더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욕구를 주었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주제들**

**2015 여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대학생들을 다룬**  
이번 호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과 제자도에서 성장했는지를 설명해 주고있다.

**2015 가을—어린아이, 청소년들과 “숨겨진” 장애들.**

자람은 힘이 드는데, 특히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사는것, 예를들어 정신 건강의 도전들, 학습 장애인들, 낙독증과 아스퍼거 증후군.

혹 여러분이나, 당신 자녀중에 이런 “숨겨진” 장애들을 가졌나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9월 1일까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 겨울—학대와 장애.** 일반 인구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 성적과 정서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학대의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응답 할 수 있도록 침묵과 비밀의 장벽을 깰 수 있도록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장애나 학대를 경험하였고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면 11 월 13일 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메모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stephenson@crcna.org](mailto: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mailto:tdeyoung@rca.org)

## 기회 균등의 숙박 시설들

by 멜리사 벨드먼

워터루 대학 학생, 워터루 온타리오주

장애 사역부의 일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성공에 필요한 편의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회 균등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있다. 학문적 기관들도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경기장을 수평” 한다는 기회 균등을 제공함에는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게 자동 문들을 제공하는 것, 교실에 봉사 개들을 허락하는 것과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 시험을 위해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장소를 허락하는 것등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한 편의 시설들은 어려운 질문들이다. 만약 학습 장애의 학생들이 시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때나? 정신 건강의 학생이 과제물들 마감일을 더 유연하게 요구할 때는?

내가 캠퍼스에 스쿠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직 내 기동력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기술들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10-15분의 여유 시간이 내가 응답해 쓰는데 요구된다. 사람들이 내 편의 시설들에 왜 필요한지에 물을 때는 보통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내 학업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나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자리에 있는것이나 "특별한 권한"에 없는것으로 이해한다.

성경에 근거한 고등 교육 기관들은 (내 학사 학위를 받은 리디머 대학 같은) 모든 학생들은 장애를 갖지 않았든지 가졌든지 간에, 창조주의 형상이 있어 그 왕국의 성취를 위해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기회 균등들 위해 학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대한으로 살 수 있도록 자라며 배우게 하곤 한다.

(이 글은 메리사 벨트멘과 학생 발달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캐나다 협회의 허락 하에, 파트너 Vol.11/2, 2012 겨울호, 에서 발췌한 것이다.)

## 시력 상실을 통한 학습

by 케티 올슨

중부 대학 학생, 펠라 아이오아주

나는 내 망막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콜라겐 장애로 법적으로 장애인인 뇨로치 증후군 Knobloch syndrome을 갖고 태어났다. 내 시력 상실때문에 매일 힘들고 불안하지만, 이것은 나를 다른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며, 내자신을 믿어주고, 불필요한 경계를 하게한다. 변장속에 축복을 통해, 난(다른 사람들과) 지금 내가 가능치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

중부 대학의 내 첫해의 내 고등학교서 전환은 더 좋을 수가 없었다. 캠퍼스내 학교 직원들과 친구들의 도움은 믿지 못할 정도였다. 나의 교수들과 학생 도움 봉사 사무실은 항상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었고 내가 성공적으로 모든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난 또 항상 내가 그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인정많은 좋은 룸메이트의 축복을 누렸다.

중부대학서 받은 내 편의시설들은 데스 모인스의

고등학교서 받은 것과 비슷하였다. 각 교실에 한 학생이 나를 위해 필기를 해주었고, 학교후 내게 이메일을 해주었다. 만일 시험이 있으면, 교수님은 그것을 학생도움봉사 사무실에 보내어 확대하여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보도록 배려를 하였다. 또한 내 전화 앱을 통해 오디오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이런 적은 편의시설들 말고는, 난 교실서 한 평범한 학생이었다. 학생도움봉사 사무실은 내가 겪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고-어떤때는 내가 얘기하기 전에도 해주었다.

난 건강과 운동 과학 학위를 공부하면서 중부대학 후엔 물리 치료 학교에 갈 계획에 있다. 나의 치어 리더에 대한 열정은 중부대학 축구와 경쟁 치어 리더 팀의 일원으로 살게하고 있다.

난 캠퍼스 사역들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바쁜가운데서도 계속 내 믿음의 여정의 자부심을 갖고있다. 난 종종 로마서5:3-5을 기억하면서 다음 3년의 대학생활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통해 일하실찌를 고대하고 있다.



## 도움 격려자들의 공동체

By 줄리안 이셋

소망 대학 학생, 홀랜드 미시간주

내가 7살때,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피부와 장기가 굳어지는 불치의 자가 면역 질환, 전신성 경피증, 진단을 받았다. 대부분의 40 세 이후에 피부 경화증 환자 진단은 보통 4 년 더 주어 지지만, 내 왼쪽 다리 부분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손상이 볼 때 나는 아이로 진단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우리가 할 수있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치유 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기적적으로, 내 다리의 그 부분은 부드럽게 됐고 내 손상은 어디에도 거의 볼 수 없었다.

레이노 병Raynaud's disease의 한 현상은,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손과 발에 경련 및 제한 순환으로 동맥에 추위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감촉이다. 내 손가락이나 다리의 바닥의 끝 부분에 디지털 궤양은 잔을 들고 걷거나 손을 사용함도 정말 고통스럽다. 작년에 두 수술은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했지만 내 손의 사용에 심하게 영향을 미쳐 내 힘을 몇달동안 약화시켰다.

내가 대학을 감으로 집떠남이 처음이었고, 그것은 내 가족과 가정의 편안함을 가지지 못하는 어려움이었다. 미시간에 살면서, 난 추운 날씨는 몸에 배였지만, 하지만 지난 겨울은 특히 교실로 걸어가는 것은, 내몸에 정말 힘들었다.

소망 대학은 내가 매주간 지날 때 나를 돕는 강력한 격려자 공동체를 제공하였다. 예배당과 일요일 밤에 모임은 내 신앙을 주님의 약속에 강하게 인도하며 지켜 주었다. 자메이카에 소망 침수 여행은, 나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카리브 기독교 센터서 봉사하게 하였고, 이번 여름엔 미주리주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캠프에서 카운셀러를 하였다.

이렇게 하게된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피난처로, 나는 신앙과 기도를 통해 긍정적으로 살게했다. 나는 나보다 더 큰 일에 자신을 몰입과 고난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난 경피증the Scleroderma재단의 옹호자가 되어, 모금에 참여하였고, 내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격려하였다.

## ‘그리고 수상들은 어디로...’

*장애물 헐기*는, 연합 교회 언론의 가장 좋은 뉴스 레터 종류의 하나로 훈장 수상 및 2014 년 가작으로 인정을 받았고, 2014에 두개의 훈장 수상과 한 영광의 말을 받았다.

뉴스 레터 최고의 등급 인식뿐만 아니라, 쥬디 토마스는 그녀의 2014 가을 기사, "소망과 새 꿈의 소리들"과 2014 여름 주제인 만성 통증 문제에 대한 글로 개인의 명예가 주어졌다.

또한 공동 편집자 마크 스티븐슨은 네트워크 The Network에 올린 자신의 장애에 관련들로 훈장 수상과 영예의 언급을 수상하였다.

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rca.org/news/and-awards-go](http://www.rca.org/news/and-awards-go)).

## 개인적 돌봄, 영적 성장

by 콜린 렌쉬

소망 대학 학생, 홀랜드 미시간주

나의 대학 경험은 내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기회들을 주며 풍부하게 하였다. 난 두첸 근이 영양 장애 Duchenne muscular dystrophy으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여 내가 아침에 준비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사용하여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내 개인 관리 보조 역할로 급우의 그룹을 고용한다.

부모님과 나는 학교의 처음 몇 주 동안 이 시스템에 대한 불안했었고, 믿음의 심각한 테스트를 해야 했다. 나는 나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급우에 의존하고 있었고, 다른 관점에서, 나의 부모는 아들을 돌보는 18-22 살의 그룹에 의존했다. 부모님과 내가 경험한 첫 달 불안은 적지 않았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게 하였고, 난 이것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내 보조자들과 나는 훌륭한 팀을 만들었고, 그들은 내가

매일 필요로하는 도움에 내게 제공하였다.

보조자들이 제공하는 도움은 내겐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그래서 나는 캠퍼스에서 많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학생, 교수, 수위, 학장, 목사, 식품 서비스 직원들은 모든 다양한 시간에 도움을 제공한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성경 구절 "두드리라 당신이 받을것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교만한 사람이란, 도움을 요청하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의미하지만, 이것은 괜찮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기독교인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기 위해선 다른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뢰를 둘 때에,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할때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신뢰를 두게한다.

기독교 맥락에서 학문의 개념을 고민할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학문을 사용하여 내 연구와 기독교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내 소망 교수님들은 내게 어떤 것이 보다 나은 기독교인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고로 나의

음악 이론 박사 학위를 추구함으로, 내 희망도 내 미래의 학생들에게 같은것 일것이다.

## **편집장의 메모**

### **내 대학 교육의 시작**

40 년 전에 첫 대학 신입생으로, 그때 어머니와 내 두 동생은 내 물건들을 북쪽 일리노이 대학 기숙사에 옮겨주면서, 난 25,000 학생들 중에 정확히 한 사람을 알고 -그리고 그는 부인과 함께 캠퍼스서 살았다. 나는 12세 이후에 목발에 의존하고 있었고, 직업 재활 제공하는 새 부서를 통해 재정 지원자격서 떨어져, 어떤 숙박 시설이 또는 근처의 기숙사 방 요청을 제외하곤, 사전에 배치된 어느 편의 시설들도 없었다.

난 내 룸메이트의 이름을 8 개월 동안 공유할 작은 방에서 만나기 전에 알았다. 스티브와 간단한 식구 소개와 인사 나눈 후에 짐을 옮기기위해 차로 향하였다. 우리가 돌아올때까지- 말한마디 없이 혹 내 명백한 신체 장애에 관한 얘기등 - 스티브는 그의 침낭을 상단 침대에 옮겨놓았다. 나는 스티브의 배려에 감동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선구적인 옹호가 에드 로버츠는 장애 권리 운동이 될만한 계기를 확보하고 있었고, 미국 장애인 법(25 살 이상 7 월부터)은 한 세대 후에 태동하였다. 그것은 1974년 장애를 갖은 학생으로 대학을 시작하는 내 자신의 부주의 또는 무지, 엄청난 행운 또는 섭리 여부를 "가서 그것을 알아봐야할" 대부분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침 집을 떠나서, 나의 대학생활은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스티브의 사려 깊은 배려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반영되어 감사하지만, 이러한 관대는 보장되지도 보편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장애물 헐기에 자신의 글을 쓴 학생들과 함께, 나는 예외가 아닌 적절한 편의 시설의 규칙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법률과 학교 정책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테리 A. 디영

© 2015 북미주 개혁신교단과 미주 개혁신교단의 장애 관심 사역들.  
장애물 헐기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장애인 사역부와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미주 개혁신교회 장애인 사역부에서,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공동으로 계절마다 발간합니다.

북미주 개혁신교단 장애인 사역부 디렉터, 마크 스트븐슨 목사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mailto:mstephenson@crcna.org)), 미주 개혁신교단 장애인 사역부 코디네이터, 테리 디영 목사 (616-541-0855; [tdeyoung@rca.org](mailto:tdeyoung@rca.org)).  
장애물 헐기 편집은 함께합니다.  
위의 글들의 출처가 공개하는 한에 복사함을 허락합니다.

북미주 개혁신교단과 미주 개혁신교단의 공동 장애 사역  
[www.crcna.org/disability](http://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http://www.rca.org/disability)